

[목회자 모임]
십자가로 가는 길 - (6) 나는 포도나무요

2020. 5. 15. 이현래 목사

맨 처음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은 두 가지 길의 선택권에 놓여 있었다. 하나는 생명나무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길이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길은 마지막에 바벨로 간다. 바벨의 구호는 ‘뭉치자. 흠어짐을 면하자. 높이 오르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세상의 구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생명의 노선으로 오면 연합으로 온다. 생명은 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의 마지막은 **“합하여(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2:24,25) 그것이 두 노선의 결말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처음에 볼 때는 연합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제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드러내려 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에는 100살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때 이삭을 얻었다. 이 원리는 계속해서 동일하다. 야곱에게서 그렇고, 요셉에게서 그렇고, 모세와 다윗이 다 그렇다. 그리고 다섯 여자도 그와 똑 같다. 자기들의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가? 그리고 한도 끝도 없다.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하려면 언제 온 인류가 그렇게 되겠는가? 다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어렵다. 결국은 둘이 한 생명 안에서 연합해야 이 숙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14:16)라고 약속하셨다. 이것도 상당히 어렵다. 어떻게 보혜사가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또 내 모든 할 일을 일러 줄 수 있겠는가?

지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성령께서 자기 곁에 혹은 자기 속에 계셔서 언제든지 지시하고 명령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룬다고 생각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신비주의 같은 것이 나오게 된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사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지 모든 만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구원의 목표, 종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여러분은 장로교 신학을 하셨으니까 다 배우셨을 것이다. 칼빈은 ‘구원의 결정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정말 맞는 말이다. 연합하면 한 생명이니까 보혜사가 따라 다니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3)고 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면 항상 같이 있는 것이다. 보혜사도 떠날 수도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 그런데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으니까 떠나갈 일도 없고 불안할 일도 없다.

생명의 연합!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생명의 연합이 되어야 완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관계다. 우리는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여기서 결말이 나와 되지 여기서 안 나오면 아무리 가도 안 된다.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아주 깊은 통찰력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한 이가 바울이다. 로마서 6장은 연합을 이야기 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6:5)고 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 칼빈도 그것만은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되는 것이다. 연합이 목표인데 방법이 없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요15:1)고 말한다. 또 다음 단계로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요15:5)라고 전개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과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합이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접붙임인데 식물에 비유한다. 두 생물이 연합해서 한 생명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요즘 과일나무는 접붙이지 않은 나무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접붙여야 좋은 열매가 맺는다. 굴도 보면 원래 뿌리는 탕자다. 거기에 굴을 접붙여서 굴이 생산이 된다.

청도 반시도 마찬가지다. 과일나무 치고 접붙이지 않고 그냥 토종 그대로 먹는 것은 거의 없다. 생명의 접붙임이다. 식물은 저렇게 하면 접이 붙여진다. 양면을 잘라서 붙이고 잘 묶어 놓으면 수액이 오고 가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 한 나무가 된다. 과일 나무는 나무 밑 등을 보면 다 접붙인 자리가 있다.

사람은 어떻게 접붙이는가? 이 문제는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되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듣고 막막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래서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황당한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느냐고 말씀했다. 니고데모는 진지하게 알려 했지만 결국은 알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다음에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요3:14)라고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늦 뱀을 쳐다보니까 백성들에게 들어갔던 뱀의 독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어떻게 늦 뱀을 보고 진짜 뱀의 독이 없어졌는가? 이것도 역시 미스테리다. 모르는 일이니까 비밀이다.

예수님도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인용하여 말씀하였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들었을 리가 만무하다. 성경대로는 알아듣지만 성경대로 알아듣는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 자기에게 효험이 없으니까 알고 보면 무슨 소린지 모르는 것이다.

대부분은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상하게 잘 모른다. 3장 16절이 너무 커서 14~15절은 묻혀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 3장 16절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는 유치원 때부터 외웠는데, 15절은 아

는 사람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랬을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부터 예수님의 이사와 기적이 시작 되었다.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 물을 갖다 놓으라고 하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이것도 비밀이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다. 비밀이라는 말이 이것이다. 신비라는 말도 귀신스럽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을 신비라고 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신비라고 한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신비다. 우리는 신비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을 고쳤다. 나면서 소경이 되면 수술도 못한다고 한다. 시 신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안구이식이 안 된다고 한다. 보통 안구 이식이라고 하면 각막을 이식하는 것이다. 앞에 있는 유리창을 바꿔주는 것이다. 백내장은 유리창을 바꿔주는 것이고, 각막 이식은 그 앞에 있는 각막을 바꿔주는 것인데 안구 자체를 다 들어내고 이식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설사 그것을 이식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뇌 속에 시신경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니까 신비다. 지금 과학적으로도 모르는 일이니까 신비라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한 모든 이적은 다 신비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다 신비다. 이 신비를 보고 제자들은 큰 기대를 가졌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저런 일을 하신다면 당연히 우리 민족의 소원을 성취할 것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확신했던 것 같다. 가면 갈수록 더 확신했던 것 같다. 심지어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전혀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내려 오지 못하고 죽으니까 너무 허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 떠나갔던 것이다.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했다면 당연히 가는 것이지 안 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기독교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심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거기서 가져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을 시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다.

나는 이것이 안 되어서 애를 먹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는가? 그때 나는 죄를 몰랐던 것 같다. 보통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 밖에 모르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그런 일로는 내가 예수님을 죽일만한 근거가 안 되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아들이 극형을 받고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죽었는데, 내 죄가 용서가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를 대단히 괴롭게 하는 문제였다.

다른 사람들도 아마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한 것 같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의 종교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그분을 본받아서 따르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길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갈라진다. 지식의 노선은 배우고 본받고 훈련해야 하는 노선이다. 공자님을 따르는 유교를 보면 학이시습(學而時習)이라고 한다. 배우고 또 익힌다. 그리고 본받는다.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고 본받고 배우고 익히고.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말이다. 유교의 핵심은 學이다. 배울 學자 學이다. 배운다는 것은 지식이니까 그렇다.

불교는 무엇인가? 깨달음이다. 불자가 음역을 한 것인데 한자로 하면 깨달을 覺자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은 무량수각(無量壽覺)이라는 뜻이다. 무량한, 한량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뜻이다. 목숨 壽자, 壽를 깨닫는다는 뜻이다. 나무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라면 그것을 한자로 번역해놓은 것이 나무아미타불이고, 그 내용은 무량수각(無量壽覺)이다. 무량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로 하면 영생, 영원이다. 영원한 목숨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불자가 붙은 분들이 많다.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전부 다 마지막에 불자다. 覺자다.

유교는 배우는 것이고, 불교는 깨닫는 것이다. 배울 것이 없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대승 불교, 우리나라에 있는 조계종에서는 배움이 아니고 깨달음이다. '팔만 법장, 법문이 마음 심자 하나다.'라고 한다. 마음 심자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참선이라는 명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얼마나 수행을 잘해서 얼마나 깊은 것을 깨닫는가? 이것이다. 왜 그런가? 인도사회에서 힌두교가 아주 잡다한 신들을 섬기기 때문이다. 잡다한 신들을 섬기니까 소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신이 아닌 것이 없다.

싯달타 석가모니가 궁중에 있다가 밖에 나와 보니까 그런 모양이다. 거기서 싯달타는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모두 허상을 가지고 있구나. 저 허상을 벗겨내야겠구나.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싯달타는 집을 나서서 그것을 벗기기 위한 수행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불교는 수행을 해야 된다. 유교는 배워야 된다. 학이시습(學而時習)이니까, 배워서 익혀야 되니까, 사서삼경을 배워야 된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한다. 기독교는 믿음이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되어서 사람을 전부 멍통으로 만들어 놓았다. 믿음,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해놓았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와 우리의 연합을 믿어야 된다. 연합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미완성이다. 내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에서 생각하고 주장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으면 다 허사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 하겠다. 모두 답이 안 나오고 애매모호하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정점이다. 바울 신학의 정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대로 포도나무는 연합이다. 생명은 연합하면 아주 간단하다. 청도 반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겠는가? 특이한 감인데 청도지방에서만 나는 감이다. 청도 반시를 가져다가 다른 지방에 심으면 안 된다고 한다. 청도는 기후 관계로 꽃 피는 시기가 다르다고 한다. 감나무는 꽃이 암꽃과 수꽃 두 가지 종류로 피는데 암꽃과 수꽃이 만나서 수정이 되어야 한다. 청도에서는 시기가 달라서 견우와 직녀처럼 서로 못 만난다고 한다. 수정 안 되어서 씨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 가면 안 된다고 한다. 아주 독특한 감이다. 아무도 흉내를 낼 수가 없다.

생명의 세계는 흉내를 내기가 불가능하다. 배우기도 안 되고 본받기도 안 되고, 이것은 믿어도 안 되고 깨달아도 안 된다. 아무 것도 안 된다. 꼭 연합이라야 된다.

창세기 2장 마지막에는 “**합하여(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2:24)라고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것인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연합을 통해서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었다. 형상과 실재의 연합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영이셔야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육체이어야 되기 때문이다. 둘이 섞이면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이 다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양성이 없고 단성을 가지고 번식하도록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생명의 세계는 그것이 안 되고 둘이 꼭 합해야 되도록 되어 있다. 연합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화학적인 결합이 아니고, 연합이기 때문에 따로따로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칼케돈 원칙이다. 절대로 양성이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격은 달라도 본질은 같지만 그렇다고 둘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원칙이 칼케돈 원칙이다. 삼위일체론이 그것이다. 따로 독립하면서 하나로 연합되어야 한다. 이래서 삼위일체가 어렵다. 독립하면서 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이라고 하면 쉬운데 그것을 합일로 생각하면 아주 어렵다. 연합이다. 알고 보면 아버지와 아들도 연합이다. 우리가 아는 육신의 생명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연합이라는 말이다. 둘이 합해진 것이다.

우리가 어디서 합해질 수 있는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어디서 합해질 수 있는가? 마지막에는 거기에 걸렸다.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 왔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거리감이 생긴다. 아무리 해도 둘이 하나가 안 된다. 하나가 안 되니까 항상 불안하다.

여자가 시집을 안 가고 있으면 항상 불안하다. 남자도 장가를 안 가고 있으면 불안하다. 장가 안간 남자가 살림을 모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결혼을 해야 살림을 모으지 결혼을 안 하면 살림을 못 모은다고 한다. 여자는 결혼을 안 해도 살림을 모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여자는 시시각각으로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배란기에만 발동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축적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남자는 시도 때도 없으니까 돈이 모아지겠는가? 안 된다. 이상하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사람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따로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합이 필요한 것이다. 연합한다고 해서 둘이 한 덩어리가 되는가? 그것은 또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한 몸이라고 말할 때는 연합된 몸을 말하는 것이지 둘이 그냥 한 떡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분명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결혼 후에는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연합체다. 사람을 지으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다. 남성과 여성이 합해야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말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본받고 해봤자 결혼하지 않은 상태 같으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안 된다. 자식이 안 나온다. 그런데 결혼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된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워서 안 되는 모든 문제, 해결 안 되는 모든 문제가 결혼이 안 되어서 그렇다. 다른 것이 없다.

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왜 생명을 걸고 기도를 못 해볼까? 나는 몸도 약하니까 기도를 못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를 많이 한다. 나는 40일은 고사하고 3일 금식기도도 못한다. 속이 아파서 못 견딘다. 나는 육신의 제한 때문에 도전을 못 해보았다. 마음은 간절했지만 도전을 못 해보았다. 서양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는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알고, 나 같은 사람은 더군다나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그냥 아는데 끝까지 밀어 붙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안 될 것은 미리 안 되는 것으로 알게 해 준 것이 너무 큰 은혜다. 살얼음판을 100미터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잘못 디디면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걸어가도 그 자리에 가면 빠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잘 못가는 사람이 가보는 것이 낫다. 스키 선수 같으면 자신 있게 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풍당 빠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신 것 같다. 안 될 것은 미리 안 될 것으로 알게 해주셨다. 그런데 끝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한 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리석기도 하다. 나는 내가 살 길을 찾은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어디서 내가 만나야 되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다. 여러 면을 보았다.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데도 보고 다 보았다. 요한 복음을 몇 번 보았다. 교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했다. 어디에 내가 비비고 들어갈 데가 있는가를 자세히 보았다. 그런데 아무데도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할 때마다 내가 살 자리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에게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든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었다.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더욱 안 된다. 신비로우면 신비로울수록 더욱 안 된다.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면 알수록 더 안 된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고민인데, 너무 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부딪칠 돌에 부딪쳤는데 부딪친 것을 모르고 있다. 예수를 만나면 부딪칠 돌이다. 바위다. 내가 아무리 쳐도 안 되고 헤딩해도 안 되는 바위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선생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는 데가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한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마17:20)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진다.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말속에는 너희는 믿음만 가지면 될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다른 말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듣지 않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문을 덜 두드려서 그렇지,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항상 내가 더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나도 그때 생각이 그랬다. 조금만 더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못하네, 내가 이 경계선을 못 넘어가네, dead point를 못 넘어가네, 항상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예수님과 같이 가겠는가? 아무도 못 간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무리 해도 누구도 못 간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분을 내가 발견하고 취하게 되었다. 내가 우등생 같으면 거기서 좋은 것을 뽑아 간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대적인 사랑을 찾아가는데, 나는 그런 것을 찾아서 갈 형편이 안 된다.

그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도 희랍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절대’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희랍 사람들이다.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생명, 절대적인 진리, 모든 것을 절대화시켜서 생각해 보는 것이 희랍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니까 희랍 철학이 안 된다. 절대를 찾기 때문이다. 절대라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찾으니까 되겠는가.

인간은 상대적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가 되지 않고 나올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아기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되면 나오는 것이다. 아버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알겠는가?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 사랑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문제인데 이 생명의 문제까지도 전부 객관화해서 절대적인 것으로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아는가? 모른다. 하나님도 우리 입장과 다르다. 그가 우리를 만드셔서 자기 형상으로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사랑이다. 우리가 볼 때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기 보다는 알고 보면 상대적 사랑이다.

생각해 보라. 형상이 없으면 나타나지 못한다. 내가 지금 마음은 있는데 손발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갈망하겠는가? 그런데 누가 그것을 흉내 낼 수 있겠는가? 못한다. 손발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망을 손발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 갈망을 보면 절대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상대적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발생한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니까 절대적이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당연하다.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어머니 사랑은 객관적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어머니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자식이 자기 앞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철로에 떨어진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아기를 구하는 엄마도 있었다. 그것이 절대적인 사랑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도 흉내 낸다고 되겠는가? 안 된다. 엄마니까 그 사랑이 나온 것이다. 엄마와 자식

간의 상대적인 관계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 그 사랑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해보자고 하니깐 이것이 너무 어이없는 일이다. 하나님 아닌 인간이 하나님 사랑을 해보자고 하니깐 되겠는가? 어머니 아닌 여자가 어머니 사랑을 하자니깐 되겠는가? 계모와 친모의 차이가 그것이다. 자기 자식이 없을 때는 그래도 애지중지 하지만 자기 자식이 생기면 안 된다. 그것이 여자의 본성이다. 그래야 새끼를 키울 것이 아니겠는가?

개가 새끼를 낳을 때, 새끼를 낳은 첫 날은 신경이 바짝 서 있다. 새끼 때문이다. 짐승도 그렇다. 그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없다. 심지어는 토끼는 새끼 낳을 때,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새끼를 다 잡아 먹어버린다. 완전히 제 정신이 아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발생한다.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겠는가 하는 것은 상대적인 입장에서 알아야 한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일이다. 지식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자기 형상인데 형상을 지금 잃어버렸으니까 조금이라도 찾는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6.25 때 몽구리라는 것을 보았다. 전쟁 중에 팔다리가 다 끊어져 버리고 몸뚱이만 남았다. 이 사람을 배낭에 넣어서 한 사람이 메고 다닌다. 그 사람은 손이 없어서 손에 갈고리를 했다. 그 사람이 메고 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한다. 몽구리는 등에 업혀 있다가 여관에 오면 내팽개치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비참했다. 손도 발도 없고 팔다리가 다 없다.

어렸을 때 동구라는 것을 잡아서 논다고 발을 다 떼면 뱅뱅 돈다. 사람이 꼭 그것과 같다.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손발이 그립겠는가? 돈벌이하려고 할 때는 메고 다니는데, 메고 다니면 귀찮고 힘드니까 집에 오면 그냥 내동댕이치고 만다. 그러면 혼자 꼼짝도 못한다. 뒤집지도 못하고 엎어지지도 못한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갈망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 절대적인 갈망이다.

하나님의 갈망도 마찬가지이다. 절대적인 갈망을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

는 것과 차원이 아주 다르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봤자 새 밭의 피다. 시편에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해도 새 밭의 피다. 하나님이 찾는 것에 비하면 새 밭의 피다.

사슴이 목이 마르면 냇가에서 물을 먹는데 악어가 기다리고 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거기를 가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인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다른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대번이 돌아서버린다. 어떤 사람이 평생 예수 믿는다고 봉사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돌아서서 교회 안 나와 버리는 사람이 많다.

자식들도 그렇다. 부모가 애지중지 키웠지만 어떤 경우에 한번 섭섭하게 해버리면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 아버지 없어도 산다. 아기 때는 부모가 없으면 못 살지만 성인이 되면 부모가 없어도 잘 산다. 똑같다.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좀 복되다.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이 그런 갈망을 갖고 있으니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다.

내가 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분명히 못 찾아간다. 그런데 내 갈망보다 백배나 큰 갈망을 가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는 진즉 떨어져 버린다. 시험 보면 다 떨어진다. 시험을 어렵게 내놓았더니 학생들이 다 떨어져버렸다면 학교를 만들어놓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가? 점수를 낮춰서라도 학생들을 입학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50점 이상은 다 오라고 하지 않겠는가? 학생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안 되면 30점이라도 오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요15:1) 이것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농부는 자기가 뿌린 씨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 농부는 밭을 좋아하는 이

유가 바로 자기 생업이 달렸기 때문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요 15:5) 이것은 생명의 연합이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만나지 못하면 만날 데가 없다.

부활 예수하고 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아는가? 모른다. 부활의 결과는 알지만 부활의 실체는 모른다. 마찬가지로이다. 예수님의 결과는 사람들이 다 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모르면 연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속 하는 것이다. 거기 밖에 연합할 데가 없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며 차근차근 결론 점에 왔다. 15장의 이 비유가 결론적인 비유다. 보혜사 보다 더 완전한, 우리 보혜사는 생명이다. 생명의 연합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보혜사를 모시고 불안한 생활을 할 것인가?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완전하게 딱 붙들어 매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왜 자기에게 오면 쉬게 한다는 것인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쉬게 된다. 안심이 된다.

목회자들도 그렇다.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생각한다.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관으로 생각한다. 목사에게 와서 사람들은 시험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목사가 시험을 안 보는 분이면 편안하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와서 편히 쉬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가 율법적이면 불안하다. 혹시 책망당할 일이 없을까? 점수가 모자라지 않을까?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불안한 것이다. 그런데 시험 안보고 합격하면 얼마나 편안하겠는가? 시험 안보는 선생을 만나면 얼마나 편안하겠는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편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안보니까 편한 것이다. 이 교회는 시험이 없는 것이 편한 것이다. 편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 해준 것도 없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다고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11:30) 우리가 남에게 멍에를 지어놓고 왜 못하느냐고 하면 안 될 것이 아니겠는가? 생명의 연합을 알면 멍에를 지을 필요가 없다. 배우고 익혀라. 이것은 멍에이다. 참선하고 깨달아라. 이것

도 멍에다. 굉장한 멍에다. 놀라운 멍에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기어코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성공하면 우쭐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등산을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니까 이래서 등산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주 있을 때 학생들이 같이 가지고 해서 치악산을 한 번 갔는데, 간신히 올라갔다. 1180m정도 높다. 내 생전 처음 제일 많이 올라간 산이 치악산인데 내려오느라 혼이 났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번 갔다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도 등산을 했다는 것이 생겼다. 나도 1180m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 이상하다.

사람이 뭔가 성취하면 자기 의가 생긴다. 나쁜 것만 아니고 좋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다. 누가 나를 1180m까지 업어주어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100m도 못 올라갈 사람인데, 1180m를 업어 올려주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더 빨리 들어온다. 이것도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다.

주님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하자고 기다리고 있다. 신부를 구하러 온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신부를 구하러 온 셈이다. 그리고 하나님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라고 해도 모른 체하신 것은 신부를 구해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석하니까 해석이 쉬워졌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신부를 구해주었다. 만일 아담이 잠을 자지 않을 것인데 왜 자게 하느냐고 하면 신부를 구해 주겠는가? 아담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무시하고 그냥 수술대에 올려놓은 것이다. 왜? 신부를 구해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갈망, 절대적 갈망, 그 갈망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심히 좋다.”**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광이다. 내 인생이 태어난 이유다.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이보다 더 큰일이 나에게서 없다. 모든 목회자들도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야 한다. 더 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저것 손을 대서 교회를 좋게 해보려고 해도 다 소용이 없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가면 무엇을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고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한번 서울에서 혼이 났다. 우리 교회가 산동네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흙벽돌로 지은 교회이다. 종탑이 옛날 것이라서 비딱해서 종탑을 고쳐보자. 바깥은 붉은 벽돌을 붙여서 모양을 좋게 해보자 했다. 그 시간에 전도는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하고 있었다. 붉은 벽돌을 발라 놓으니까 좀 낫다. 그냥 시멘트 발라 놓은 것보다 나아서 종탑까지 고쳐보려고 했다. 종탑을 고친다고 건축회사에 맡길 수 없으니 동네사람에게 시켰는데, 탑을 쌓아 올라가다가 허물어져 버렸다. 그때 아찔했다. 벽돌을 쌓다가 그만 허물어졌는데 일하는 사람의 등허리로 지나갔다. 이 사람도 별로 다치지 않았다. 어디로 쏟아졌는가 하면 그 밑이 가내공업을 하는 공장인데 천장이 슬레이트 밖에 없는데 그리로 쏟아졌다.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틀림없이 다칠 뻔했는데 그 시간이 마침 사람이 비어 있는 시간이었다. 지붕에서 쌓고 있던 시멘트 벽돌이 그 공장 지붕으로 떨어져서 구멍이 뚫어졌다. 아찔했다.

그때 만일 사람이 죽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다. 쓸 데 없는 일을 괜히 하느라 아찔한 일을 경험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안되는데, 모양 좋은 종을 뭐하겠는가?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설교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로 데려 간다고 설교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모르겠다. 부산으로 가는지 목포로 가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설교는 꽤 잘한다고 했는데, 듣는 사람도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양이 되었다.

헛된 것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교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교역자가 할 일이 아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다.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제도를 고친다거나 집을 고친다거나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는 교회당 짓는 것은 생각도 안했다. 우리 형제들이 다 한다. 내가 그 집을 지었으면 지금까지 못 살았을 것이다. 내가 그런 것을 하면 신경을 되게 쓰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신경 쓰면 잠이 안 온다. 당장 육신적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

완전히 이*용 장로에게 맡기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나는 모르겠다고 했으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약한 것도 복이다. 내가 힘이 있었으면 다 했을 텐데 약하니까 못한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칼빈도 연합이 없으면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와 연합된 사람과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다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으면, 한국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돈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임금님에게 별것이 다 있어도 내가 임금님 아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조선시대는 한번 간택에 나간 처녀들은 평생 시집을 못 간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가.

하나님에게 쓰이려고 나왔다가 못 쓰이면 간택 못 받은 여자와 똑같다. 너무 무섭고 잔인한 법을 정해 놓았다. 인생도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 작성된 사람은 그렇게 안 쓰이면 절대로 안 된다. 원래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어놓은 인간이니까 멸망이라는 말이 그 말이다. 결국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인데 엉뚱한데 다른데 쓰이는 것이 멸망이다. 오로지 한 목적에만 쓰일 수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사역자들은 오로지 한 목적에만 쓰여져야 하므로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칼빈이 너무 명백하게 밝혀 놓았다. 그런데 장로교에서 연합이라는 말을 못 들어 본다. 왜? 안되니까 그렇다. 왜 안 되는가? 어떻게 해야 연합이 된다는 것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지만 아무래도 소용이 없다.

바르트는 구속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화해라는 말을 썼다.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세상에 쉽다. 쉽지만 내가 어떻게 누리는가? 남의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는가? 그분과 연합 없이 누리겠는가?

내가 임금님에게 시집을 가지 않고 궁중에 있는 것을 누리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얼른 들으면 쉽고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연구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니저러니 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다 검사를 해보니까 없다. 어디서 연합했는지는 없다. 그만큼 안 것도 천재적이다. 지식이 없어서 몰랐겠는가? 능력이 없어 몰랐겠는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쓸 데는 다 다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는 것이지 그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이것을 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안 것이지 내가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잘 났겠는가? 써 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잘 써놓았다. 논문 써 놓은 것도 봤는데 정말 잘 써놓았다. 한 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썼다.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구나 싶었다.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서 말을 못 하니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정리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우리끼리 자연스럽게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교회이다. 우리 교회 연합에 이름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다. 교회 연합이라고 하든지 연합이라는 이름을 써서 교회 이름을 쓰고 싶다. 장로교냐 감리교냐 물으니깐 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쓰고 있나 검사하고 있다. 미국에는 남가주 연합 장로교회 등 연합을 쓰는 곳이 많다. 한국에는 그런 교단이 없는 것 같다. 그 말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